노동포커스

2013년 고용성과 평가 및 2014년 고용 전망

남 재 량*

일자리와 고용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지도 이미 오래다. 곧 다가올 2014년에 우리 경제의 고용 성적은 과연 어떨까? 우울한 전망으로 시작된 2013년의 고용성과는 실제로 부진하였다. 상반기 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고용증가도 35만 명에 머물고 있어 전년동기의 46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3분기 들어 취업자 수가 42만 명 증가하였고 10월 들어서도 47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5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달을 거듭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희소식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이 개선되는 모습도 뚜렷하다. 2013년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을 전망해보자.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용직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상용직의 증가는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지속적이며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고용성과가 미진하였던 올해 상반기에도 상용직은 60만 명가량 증가하였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다. 상용직의 이러한 장기 증가 추세는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고용변화도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이다. 고령화로 인한 50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는 이미 중요한 추세로 자리 잡았으며,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고용을 전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에 의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감소도 중요한 특징이다.

올해에 나타난 새로운 중요한 변화들도 존재한다. 여러 측면에서 고용증가 주도세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대규모 사업체에서 중소규모 사업체로,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 위주로 고용성장이 바뀌고 있다. 올 상반기의 고용성과는 취업자가 12만 명이나 증가한 제조업에 힘입은 바 크며 이러한 성과는 이례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9년 이후 증가세로 바뀌었으나, 이미 2009년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rnam@kli.re.kr).

제로 2012년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8만 명 넘게 감소하였다. 2013년 상반기에 제조업의 우수한 고용성과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호조와 기저효과 등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제조업의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크게 둔화되었다. 대신 그동안 부진하였던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가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지속적인 고용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제조업 고용비중은 낮고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고용성장의 변화는 향후 고용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고용성과의 43%를 대규모 사업체가 올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취업자의 절대 다수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징은 상반기 제조업 고용성과와 함께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3분기에 고용성과의 75%를 중소규모 사업체가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10월 들어 이 비중은 더욱 커져 81%를 넘고 있다. 중소규모 중심의 고용성장 역시 고용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들어 여성이 고용증가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여성 취업자 증가가 남성의 경우를 능가하는 상황이 하반기 들어 4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성별 격차가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에 더해 최근 들어 신규 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상용직의 신규 채용이 전문대졸 이상 학력집단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2개월 연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신규 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에서도 5개월 연속 신규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2014년 성장 전망(한국은행 3.8%)에다 위와 같은 중요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4년 고용성과는 올해보다 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노동시장 여러 특징들에 큰 변화가 없고 자영업에서 추가적으로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회복과 함께 40만 명이 넘는 고용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여기에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우수한 성과도 가능할 것이다. KLI